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6, pp. 409-418, 2021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1.19.6.409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방설영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Humanity, and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n College Life Adaptation

Sul-Yeong Ba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Changwon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C시 지역 간호학과 신입생 190명이었고,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4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과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 학교생활만족도, 친구 수였으며,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성(β=.659, p<.001)이었고, 셀프리더십(β=.274, p=.001), 친구 수(β=.258, p=.003)순이었다.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51.2%이었다(F=40.72, p<.001). 또한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므로 간호학과 신입생의 인성과 셀프리더십을 향상시켜 대학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 대학생활적응, 간호대학생, 신입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humanity,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apt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0 freshmen from the Department of Nursing in C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the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llege life adaptation were self-leadership, personality, resilience,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the number of friends. Humanity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β=.659, p<.001) in college life adaptation, followed by self-leadership(β=.274, p=.001), and number of friends(β=.258, p=.003).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51.2%(F=40.72, p<.001). In addition, there was a high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humanity, resilience and college life adap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a program that can help college life adaptation by improving the personality and self-leadership of freshmen in nursing.

Key Words : Self-leadership, Humanity, Resilience, College Life Adaptation, Nursing students, Freshme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hangshin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20(Changshin-2019-61).
*Corresponding Author : Sul-Yeong Bang(bsy@cs.ac.kr)
Received March 29, 2021 Revised May 7, 2021
Accepted June 20, 2021 Published June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부모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사회인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인간으로의 성숙과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는 시기이다[1]. 또한 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와 풍부한 경험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전문적 역량을 키워 사회에 기여하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이 대학에서 마주치는 변화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대처해가는 것을 의미한다[2,3]. 또한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의 적응뿐 아니라 학습 성과 및 정서적 성숙까지 영향을 미치므로[4]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생활 부적응 학생들이 증가하고[1, 5] 이중 상당수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대학 알리미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COVID-19로 인한 수업환경의 변화는 더더욱 학생들의 적응을 힘들게 하고 있다[6]. 그러므로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지각하고,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변인들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대학에 적응하며 학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반응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해야 한다. 이 때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신과 주변 환경을 잘 통제하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7]. 셀프리더십이란 한 개인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인지적·행동적 과정을 말한다[1]. 즉, 스스로 의미있는 행동을 찾아내고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리더십이다[4, 8].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면 간호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주므로[9]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의 함양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역동적인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1, 5]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필요한 대학 신입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호현장에서도 인성이 중요시되고 있다[10].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전문인에게 인성이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되면서[11, 12], 대학에서도 인성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13].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이나 개인의 사고와 태도, 행동의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격[13, 14]을 의미한다. 특히 간호대학생에게 인성은 윤리의식과 배려 및 공감능력을 갖추고 인간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11, 12]로 이해되며, 간호사의 인성은 간호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15] 인성은 간호대학생이 반드시 함양해야 할 자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성은 대학생활적응과 영향을 미치므로[16] 간호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회복탄력성은 외부 자극이나 역경에 대응하는 정신적인 면역력으로, 개인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유익한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이다[17].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저항력이 되므로[18], 힘든 의료환경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17, 19]에게 더욱 중요한 역량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자신의 적성과 관심보다 직업의 안정성이나 수입이 간호학과 선택의 주요 요인이 되어, 충분한 고민없이 간호학을 전공하는 간호학과 신입생들은 교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용어의 생소함과 많은 학습량으로 인해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한다[20]. 이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회복탄력성[17]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대학생과 간호학과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4, 5, 7],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셀프리더십과 인성,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인성,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도 C시 소재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21]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효과크기 .15(중간),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0.95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크기는 184명이었으며, 10%의 탈락율을 고려하여 20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제 특성 8문항, 셀프리더십 18문항, 인성 29문항, 회복탄력성 24문항, 대학생활적응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8]가 개발하고 Kim[22]이 수정, 보완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도구는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의 6개 영역,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클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8]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7이었고, Kim[22]의 연구에서는 .87,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2 인성

대학생의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Lee와 Kim[23]이 개발한 것을 수정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Hur와 Jang[12]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진로 계획, 도덕적 인식, 책임감, 존중, 자기조절, 긍정적 자기 이해, 배려/봉사, 역량/의지의 8개 영역,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클수록 인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4이었으며, Hur와 Jang[12]의 연구에서는 .94,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3.3 회복탄력성

간호대학생을 위해 Yang, Kim, Yu, Park, & Lee[17]이 개발한 한 회복탄력성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도구는 자신감, 긍정성, 감정조절능력, 대처능력, 조직적 스타일, 관계성, 사회적 지지의 7개 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클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4 대학생활적응

Baker와 Siryk[3]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ACQ: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를 Choi[24]가 분석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도구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의 4개 영역,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클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i[24]의 연구에서Cronbach's α는 .89,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였다.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동의한 203명에게 연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설문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13부를 제외하고 연구에 참여한 19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 연구는 C시 C대학의 IRB승인(CSIRB−R2019012)을 받은 후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해 연구 참여 설명문을 이용하여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참여 여부는 자발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며, 연구 진행 중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중도포기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한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종료 후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참여를 결정한 연구대

상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15분이었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대표학생이 수거하여 봉인한 후 본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 대학생활적응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G도 C시 소재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19.6±3.54세이며 성별은 여성이 151명(78.5%), 진학동기는 직업에 대한 관심이 60명(31.6%)이었고, 친구 수는 10명~19명이 96명(50.5%),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186명(97.9%)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 (yr)		19.6±3.54
Gender	Male	39 (20.5)
	Female	151(79.5)
Residence	Living with parents	87 (45.8)
	Dormitory	76 (40.0)
	live apart	23 (12.1)
	Other	4 (2.1)
Motivation for selecting departments	Academic record	20 (10.5)
	Advice of Family	22 (11.6)
	Aptitude	35 (18.4)
	Crush for the job	60 (31.6)
	Employment	53 (27.9)
Semester Rating	2.5~3.0	32 (16.8)
	3.1~3.5	66 (34.7)
	3.6~4.0	59 (31.1)
	4.1≤	33 (17.4)
Number of Friend	>10	30 (15.8)
	10≤ >20	96 (50.5)
	20≤	64 (33.7)
Major Satisfaction	Upper	96 (50.5)
	Middle	88 (46.3)
	Lower	6 (3.2)
Satisfaction of school life	Upper	96 (50.5)
	Middle	90 (47.4)
	Lower	4 (2.1)

3.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평균 3.55±0.51점이었으며, 건설적사고가 3.75±0.66점으로 가장 높았고, 목표설정이 3.43±0.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성은 평균 3.92±0.79점이었으며, 역량/의지가 3.81±0.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도덕적 인식이 2.07±0.4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평균 3.58±0.48점이었으며, 긍정성이 3.93±0.73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계성이 3.09±0.5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3.07±0.33점이었으며, 학업적응이 3.40±0.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응이 2.74±0.50점으로 가장 낮게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2. Self-leadership, Humanity, Resilience, College Life Adaptation of participants (N=190)

Variables		M±SD
Self-leadership	Self-leadership	3.55±0.51
	Self-expectation	3.47±0.60
	Rehearsal	3.44±0.63
	Goal setting	3.43±0.53
	Self-compensation	3.46±0.57
	Self-criticism	3.74±0.68
	Constructive thinking	3.75±0.66
Humanity	Humanity	3.72±0.79
	Career plan	3.77±0.65
	Moral perception	3.07±0.46
	Responsibility	3.67±0.34
	Respect	3.70±0.41
	Self-regulation	3.64±0.44
	Positive self-understanding	3.63±0.41
	Caring/Service	3.57±0.61
	Competency/will	3.81±0.71
Resilience	Resilience	3.58±0.48
	Confidence	3.87±0.73
	Positive	3.93±0.73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3.68±0.63
	Coping ability	3.47±0.50
	Organizational style	3.36±0.43
	Relationship	3.09±0.56
	Social support	3.64±0.70
College Life Adaptation	College Life Adaptation	3.07±0.33
	Academic adaptation	3.40±0.49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3.07±0.43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3.05±0.38
	Social adaptation	2.74±0.5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 대학생활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 대학생활적응을 살펴본 결과는Table 3과 같다. 셀프리더십은 전공만족도(F=1.691, p=.018)와 대학생활만족도(F=14.763,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에서도 셀프리더십은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중간이나 낮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활만족도가 중간인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은 전공만족도(F=0.620, p=.001)와 대학생활만족도(F=21.199,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에서도 인성은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활만족도가 중간인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성별(F=4.277, p=.001), 학과선택동기(F=2.806, p=.027), 친구 수(F=3.547, p=.008)와 대학생활만족도(F=17.365,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회복탄력성은 친구가 10명 미만인 집단보다 20명 이상인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중간이나 낮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활만족도가 중간인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은 친구 수(F=4.756, p=.001), 전공만족도(F=0.810, p=.001)와 대학생활만족도(F=15.048,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적응은 친구가 10명 미만인 집단보다 20명 이상인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활만족도가 중간인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셀프리더십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62, p<.001)를 나타냈

Table 3. The Subject's Self-leadership, Humanity, Resilience, College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N =1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leadership		Humanity		Resilience		College Life Adaptation	
		Mean±SD	t/F(p) Scheffe's test	Mean±SD	t/F(p) Scheffe's test	Mean±SD	t/F(p) Scheffe's test	Mean±SD	t/F(p) Scheffe's test
Age(yr)		3.59±0.57	1.025 (.441)	2.85±0.29	1.520 (.051)	3.65±0.52	1.229 (.186)	3.06±0.34	1.419 (.070)
Gender	Female	3.58±0.51	1.697 (.093)	2.84±0.25	− 0.109 (.913)	3.66±0.47	4.277 (.001)	3.07±0.34	0.150 (.881)
	Male	3.43±0.50		2.84±0.32		3.30±0.43		3.06±0.33	
Residence	Living with parents	3.52±0.51	1.308 (.268)	2.85±0.31	0.236 (.918)	3.59±0.50	1.037 (.389)	3.05±0.34	0.232 (.920)
	Dormitory	3.58±0.56		2.83±0.24		3.59±0.52		3.07±0.26	
	Live apart	3.61±0.30		2.83±0.20		3.62±0.32		3.10±0.52	
	Other	2.98±0.03		2.75±0.23		3.03±0.05		3.19±0.20	
Motivation for selecting departments	Academic record	3.27±0.71	1.780 (.135)	2.69±0.47	2.098 (.083)	3.27±0.68	2.806 (.027)	2.93±0.59	1.379 (.243)
	Advice of Family	3.61±0.48		2.87±0.18		3.67±0.44		3.01±0.40	
	Aptitude	3.58±0.52		2.89±0.22		3.67±0.48		3.08±0.20	
	Crush for the job	3.60±0.50		2.83±0.24		3.63±0.51		3.08±0.25	
	Employment	3.55±0.41		2.85±0.24		3.57±0.33		3.12±0.31	
Number of Friends	>10[a]	3.35±0.59	1.564 (.186)	2.74±0.42	1.743 (.142)	3.34±0.63	3.547 (.008) a>b	2.94±0.44	4.756 (.001) a>b
	10≤ >20	3.56±0.43		2.84±0.22		3.66±0.40		3.05±0.32	
	20≤[b]	3.64±0.55		2.86±0.22		3.74±0.48		3.14±0.25	
Major Satisfaction	Upper	2.03±0.33	1.691 (.018)	2.37±0.44	0.620 (.001)	2.39±0.47	1.202 (.212)	3.23±0.24	0.810 (.001)
	Middle	1.83±0.33		2.23±0.36		1.89±0.50		3.14±0.35	
	Lower	2.02±0.54		2.26±0.67		1.81±0.37		3.19±0.37	
Academic Record	2.5≤ >3.0	3.44±0.42	2.238 (.085)	2.84±0.23	1.291 (.279)	3.48±0.45	1.408 (,059)	3.11±0.22	0.271 (.846)
	3.0≤ >3.5	3.64±0.56		2.86±0.20		3.69±0.48		3.05±0.21	
	3.5≤ >4.0	3.59±0.45		2.85±0.29		3.60±0.43		3.08±0.38	
	4.0≤	3.40±0.54		2.75±0.37		3.45±0.58		3.05±0.51	
Satisfaction of school life	Upper[a]	3.70±0.47	14.763 (<.000) a>b,c, b>c	2.90±0.25	21.199 (<.000) a>c,b>c	3.73±0.46	17.365 (<.000) a>b,c, b>c	3.11±0.31	15.048 (<.000) a>c,b>c
	Middle[b]	3.43±0.44		2.80±0.21		3.47±0.40		3.06±0.25	
	Lower[c]	2.63±1.10		2.14±0.77		2.60±1.11		2.23±1.06	

다. 인성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99, p<.001)를 보였으며, 회복탄력성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67,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인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527, p<.001)를 보였으며,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74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은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637, p<.001)가 있는 것으로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셀프리더십과 인성,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subject's Self-leadership, Humanity, Resilience and College Life Adaptation (N=190)

Variables	1	2	3	4
	r(p)	r(p)	r(p)	r(p)
1. College Life Adaptation	1			
2. Self Leadership	0.362 (<.001)	1		
3. Humanity	0.399 (<.001)	0.527 (<.001)	1	
4. Resilience	0.367 (<.001)	0.748 (<.001)	0.637 (<.001)	1

3.5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가 있었던 인성, 셀프리더십,회복탄력성, 학교생활만족도, 친구 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학과선택동기는 더미변수 처리하였고, 단계적(Stepwise)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35-96, VIF 1.03-1.83으로, 공차한계가 0.1이상, 분산팽창지수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Test의 경우 d=1.664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여 잔차의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성(β=.659, p<.001)이었고, 셀프리더십(β=.274, p=.001), 친구 수(β=.258, p=.003)순이었다.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51.2%이었다(F=40.72, p<.001). Table 5 참고.

Table 5. The effects of subject's Self-leadership, Humanity,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aptation (N=190)

	B	SE	β	t	p
(constant)	1.453	.234		6.22	<.001
Humanity	.659	.215	.543	2.90	<.001
Self Leadership	.474	.105	.220	1.76	.001
Number of Friend	.258	.019	.200	1.01	.003
Resilience	.196	.064	.124	1.17	.085
Satisfaction of school life	.085	-.138	.067	-1.19	.234
R^2=54.8, Adj R^2=51.2, F=40.72,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성과 셀프리더십, 친구 수, 회복탄력성이었고,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51.2%이었다.

본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은 평균 3.55±0.51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건설적사고가 3.75±0.66점으로 가장 높았고, 목표설정이 3.43±0.5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25, 26]의 3.30~3.32점과 다른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5, 7]의 3.41~3.53점보다 높은 점수였다. 이는 도구에 따른 차이도 있겠으나, 2020년 대학 신입생의 경우 2015년부터 변경된 교육과정[27]에 따라 중등교육부터 자율적인 수업환경이 제공되었던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셀프리더십은 주도적인 행동과 비판적사고를 통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전문직 간호사의 기본적인 자질로 평가되므로[9] 간호대학생이 함양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판단된다.

인성은 평균 3.72±0.79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역량/의지가 3.81±0.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도덕적 인식이 3.07±0.46점으로 가장 낮았다. 도구는 달랐으나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3.68~3.76점[16, 19, 27]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거나, 3.80~4.17점[11, 20]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인성은 개념에 따라 구성하는 요소가 다양하여 측정도구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므로[12]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성이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인성이 교육과 환경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고 한 Choi[13]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최근에는 간호현장에서도 인성이 강조되어[10, 19],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도 간호대학생에게 인성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 28].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인성은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량[10]으로, 대상자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간호하는 간호사의 태도는 건강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15, 29] 간호대학생이 바람직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회복탄력성은 평균 3.58±0.48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긍정성이 3.93±0.73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계성이 3.09±0.5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3.25~3.49점[18,25,26]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연구[5,19]의 3.28~3.37점보다 높은 점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5, 18, 19, 25, 26]에서 관계성이나 대인관계가 비교적 높은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대학 신입생들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신입생을 위한 멘토-멘티 활동이나 멘토교수제 등을 통하여 원만한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경력을 쌓아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27].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3.07±0.33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학업적응이 3.40±0.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응이 2.74±0.50점으로 가장 낮았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원도구가 같은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은 3.01점[5]으로 본 연구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학생활적응은 3.33점[1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40~3.44점[7, 27, 30]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대학생활적응이 낮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하위요인을 살펴보았는데, 대학생활적응이 낮은 신입생들은 본 연구와 같이 학업적응이 가장 높고 대인관계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5, 16]. 그에 비해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1]에서는 사회적응이 가장 높고, 학업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 신입생들은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대학생활적응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 신입생에게는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낯선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 대학생활적응을 살펴본 결과 셀프리더십은 전공만족도(F=1.691, p=.018)와 대학생활만족도(F=14.763,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셀프리더십이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22]와 유사한 결과였다. 인성은 전공만족도(F=0.620, p=.001)와 대학생활만족도(F=21.199,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성이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4, 16, 19, 20]와 동일한 결과였다. 대학생의 인성은 긍정적인 학교생활과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쳐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것으로 판단된다[19,20]. 회복탄력성은 성별(F=4.277, p=.001), 학과선택동기(F=2.806, p=.027), 친구 수(F=3.547, p=.008)와 대학생활만족도(F=17.365,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복탄력성이 친구관계, 대학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18,19]와 동일한 결과였다. 회복탄력성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17] 대학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생활적응은 친구 수(F=4.756, p=.001), 전공만족도(F=0.810, p=.001)와 대학생활만족도(F=15.048,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생활적응이 친구관계,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5,18,28,30,31]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처럼 본인의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 경우 대학생활에 적응을 더 잘하는 것을 알 수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셀프리더십(r=.362, p<.001), 인성(r=.399, p<.001), 회복탄력성(r=367, p<.001)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셀프리더십과 인성,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알 수있다. 이는 선행연구[1, 4, 5, 7, 31]에서 셀프리더십과 대학생활적응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동일한 결과였다. 또한 인성과 대학생활적응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18, 19, 27]와 같은 결과였고, 회복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5, 18]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셀프리더십은 인성(r=.527, p<.001), 회복탄력성(r=.74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인성은 회복탄력성(r=.637,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복탄력성과 셀프리더십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25, 26]와 같은 결과였다.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친구 수와 대학생활만족도, 셀프리더십, 인성 및 회복탄력성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성(β=.659, p<.001)이었고, 셀프리더십

(β=.274, p=.001), 친구수(β=.258, p=.003)순이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1.2%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인성이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고, 모형의 설명력이 49%였던 Joung과 Ryu[2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대인관계, 인성, 전공만족도가 보건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65%[30], 상담횟수, 전공만족도와 인성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49%[27] 설명한 연구를 통해 인성이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있다. 또한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26.2%[7], 대인관계능력, 셀프리더십, 자기결정성, 대학생활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23.4%[1],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30.6%[32], 자아탄력성과 영적안녕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39% 설명한 연구[33]를 통해 셀프리더십과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있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도 C시의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성과 셀프리더십, 친구 수, 회복탄력성이었고, 설명력은 51.2%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전공에 따른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학과 신입생의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M. K. Jeon & J. W. Oh. (2019). Self-leadership, Self-determin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ac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Crisisonomy, 15(3),* 71-81. DOI: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19.15.3.71

[2] S. Y. Jo & K. L. Cho. (2019). A study on the needs of university education service and campus life adjustment for college freshme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8),* 1073-1097. DOI: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18.1073

[3] R. W. Baker & B. Siryk.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4] H. J. Moon. (2018). The Relationship of Adaptation of College and Academic Achievement: with the Mediating Effects of Openness and Self-leadership,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4),* 827-847. DOI: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827

[5] J. S. Lee. (2016).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253-260. DOI:http://dx.doi.org/10.5762/KAIS.2016.17.10.253

[6] S. M. Kwon. (2021.4.13.). [College in crisis] *① Low birth rate, corona 19 'collapsing' university*. Yunhap News Agency. https://www.yna.co.kr/index?site=header_logo

[7] J. I. Kim. (2018).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5),* 253-262. DOI:https://doi.org/10.5762/KAIS.2018.19.5.253

[8] C. C. Manz.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85-600.

[9] H. J. Park. (2015).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27-23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27

[10] E. I. Yeom. (2019).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Interpersonal Problems, and Academic Stress on Problem-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 209-220. DOI: http://dx.doi.org/10.21742/AJMAHS.2019.01.22

[11] M. H. Jeong. (2017). Effect of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9),* 302-314. DOI:http://dx.doi.org/10.5762/KAIS.2017.18.9.302

[12] M. L. Heo & Y. M. Jang. (2019). Validation of the Personality Measurement Tools for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3),* 321-330.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9.25.3.321

[13] M. S. Choi. (2019).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 Humanity Leadership Program on Personality, Self-Esteem, Leadership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8),* 441-448. DOI:https://doi.org/10.5762/KAIS.2019.20.8.441

[14] K. W. Son & S. H. Um. (2019).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influencing factors of character index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52,* 199-252. DOI:https://doi.org/10.18850/JEES.2019.52.08

[15] E. Y. Yeom & K. W. Seo. (2018). Influences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character of nurses on quality of nursing serv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5),* 445-454. DOI:https://doi.org/10.11111/jkana.2018.24.5.445

[16] S. S. Sim & M. R. Ba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634-642. DOI:http://dx.doi.org/10.5762/KAIS.2016.17.12.634

[17] Y. H. Yang, E. M. Kim, M. Yu, S. M. Park & H. Y. Lee. (2015).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7(3)*, 337-346. DOI:http://dx.doi.org/10.7475/kjan.2015.27.3.337

[18] I. H. Chun &. J. Y. Cho.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elf-efficacy, Resilience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6(1),* 49-60.

[19] M. H. Nam & H. O. Kim. (2018). Effect of Personalit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4),* 298-306. DOI:https://doi.org/10.11111/jkana.2018.24.4.298

[20] W. J. Joung & Y. M. Ryu. (2019). The influence of humanity, problem solving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6),* 193-211. DOI: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16.193

[21]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22] H. S. Ki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23] K. Y. Lee & C. S. Kim. (201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rsonality measurement tools for college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6), 401-422. DOI: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16.401

[24] I. S. Choi. (2016). Influ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Cheonan, Korea.

[25] K. W. Seo & H. K. Moon. (2018).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Resilience, Self-efficacy, Self efficacy of Career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6),* 233-242. DOI: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6.16.

[26] J. H. Ryu & J. H. Cho. (2018). Influencing of Resilience and Innovative organization culture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2),* 525-534. DOI: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2.79

[27] J. R. Lim & S. Y. Kim. (2019).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and Stress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0),* 301-308. DOI:https://doi.org/10.15207/JKCS.2019.10.10.301

[28]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19). First half of 2019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University Enchiridion. Seoul: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9] J. K. Youk. (2017). The Effect of Liberal Education for Personality Enhancement on Core Competency,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11(3),* 23-36. DOI: https://doi.org/10.18015/edumca.11.3.201712.23

[30] M. J. Jun & E. K. Noh. (2018).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 433-442. DOI:https://doi.org/10.15207/JKCS.2018.9.4.433

[31] M. S. Kim. (2017).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lleg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2),* 184-193.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7.23.2.184

[32] B. R. Cho & J. M. Lee. (2019). Effects of undergraduate students' stress,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4),* 1-11. DOI:http://dx.doi.org/10.14400/JDC.2019.17.4.001

[33] S. Y. Yun & S. H. Min. (2014).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395-403. DOI: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395

방 설 영(Sul Yeong Bang) [정회원]

· 2017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리더십, 생명윤리, 간호관리
· E-Mail : bsy@cs.ac.kr